

# 한-일 외교갈등 '숨고르기' 모드

## '강대강' 충돌 양상 진정... 갈등 재점화 변수는 여전

### 중-일은 다오위다오 싸고 대립 심화

독도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해 온 한국과 일본의 갈등 수위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일단 숨고르기 모드로 들어간 모양새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에 우리 정부가 단호히 맞섰던 지난 24일 이후 지난 주말까지 양국 모두에서 가시적인 추가 대응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빚어졌던 양국의 '강대강' 충돌 양상은 표면적으로는 한층 진정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독도 도발과 주요 인사들의 강경 발언에는 단호하면서도 냉정하게 대응한다는 기조를 갖고 예정됐던 조처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 구상서를 반박하는 구술서 형태의 외교문서를 이르면 28일 보낼 예정이다. 일본에서는 노다 총리의 기자회견 이후 정부 차원에서 보복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양국간 갈등은 냉각기로 들어서 수면 아래로 잠복해 있을 뿐 언제든 다시 대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노다 총리가 지난 25일 일본의 노조 단체인 렌고(連合)의 고 노부아키(古賀伸明)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독도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냉정 문제

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주장한 것도 논란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 차원의 움직임은 아니지만 일본 우익단체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우리 지자체 의회(경북도의회)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시도에 맞서 대마도 회복운동 방안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틀에서 볼 때 한일 간 갈등이 '숨고르기'를 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 수위는 격화되고 있다. 노다 총리가 지난 24일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관련 기자회견에서 "센카쿠가 일본땅"이라고 주장한 것이 중국을 자극해 강경 대응을 촉발시킨 것이다.

중국을 향해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중국의 영토주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중국 전역에서는 최근 다소 잠잠해졌던 반일(反日)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은 자위대가 미국 해병대와 함께 지난 21일부터 미국령 괌과 테니안 섬 근해에서 중국군이 센카쿠열도를 침범하는 상황을 가정한 도사 탈환 훈련을 시작했으며 상륙돌격장갑차 도입을 추진하는 등 센카쿠에 대한 실호지배력 강화로 맞서고 있다."

외교부에서는 한국과 중국, 나아가 러시아와도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 정부가 동북아 각국의 강경 대응을 촉발시켜 스스로를 코너에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美 대선레이스 본격화... 초박빙 판세

## 공화, 27일 전대 롬니-라이언 정·부통령 후보 확정 민주, 다음달 3~6일 전대 오바마·바이든 공식 지명

미국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의 컨벤션 센터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와 폴 라이언 하원의원을 오는 11월6일 대선에 나설 정·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한다. 이에 따라 미국 대선의 열기가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민주당은 다음달 3~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오바마 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을 각각 대선후보와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한다.

공화당은 '더 나은 미래(A Better Future)'를 주제로 내세운 플로리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확실하게 전세를 역전시키겠다는 기세다. 롬니 후보와

경쟁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승부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전대 효과'로 기대되는 5%의 지지율 상승이 현실화될 경우 승산이 있다는 전라이다.

181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전당대회는 사실 전국의 대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축제성격이 짙은 정치 이벤트로 평가되지만 대통령 후보자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난 2004년 대선의 경우 유권자의 14%가 전당대회를 보고 후보자를 결정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롬니는 대통령 후보 지명 수락 연설을 통해 '경제전문가'로서의 내공

을 과시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풀지 못한 현안의 '해결사(Mr. Fix It)'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신이 향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반드시 해야 할 일(to-do 리스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그러나 기상여건에 촉각이 곤두서있다. 전당대회가 열리는 기간에 허리케인으로 위력이 커진 아이작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화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조정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첫날인 27일 후보를 지명하는 일정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경우 롬니의 후보 지명은 이를 앞당겨지지만 수락 연설은 예정대로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3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연남뉴스

# 시리아 17개월째 유혈 사태 하루 440명 사망... 최악 참사

## CNN·AFP통신 보도

17개월째 유혈 사태가 지속되는 시리아에서 하루 동안 4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CNN과 AFP통신이 시리아 반정부·인권단체 말을 인용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시리아 반정부 조직인 시리아지역 조정위원회(LCC)는 지난 25일 하루 동안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다라야 지역에서 시신 200구 이상이 발견된 것을 포함해 최소 440명이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200여구 가운데 80구의 신원이 확인됐다.

440명의 사망자 수치는 지난해 3월 시리아에서 반정부시위가 발생하고 나서 하루 동안 발생한 최악의 인명 피해다.

다라야 주민이 집단 학살된 구체적인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최근 1주일 간 정부군이 이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한 활동가는 말했다.

다라야는 다마스쿠스에 인접한 도시인데다 반정부 시위가 가장 먼저 일어난 지역 중 한곳이어서 정부군의 공격 목표물이 됐다고 LCC 대변

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시리아 정권은 혁명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들은 혁명이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것을 파괴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라야 지역에서는 이날 오전에도 9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시리아 전역에서 최소 25명이 사망했다고 활동가들은 집계했다.

반군 측에 따르면 지난 20~21일에도 정부군이 다마스쿠스의 서남부 외곽 지역을 집중 공격해 86명이 사망했다.

그 중 절반은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됐다고 반군은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망명실이 돌았던 시리아의 파루크 알 샤라(73) 부통령이 1달여 만에 처음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AFP가 전했다.



시리아의 다라야에서 친정부 반정부 사비하에 의해 살해된 민간인의 시신들이 26일(현지시간) 무더기로 발견됐다. 현지보도에 따르면 정부군이 다마스쿠스 외곽을 3일 전 재점령하면서 학살이 시작돼 사망자 수가 최소 300여명에서 많게는 6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연남뉴스

# 허리케인 '아이작' 美 남부 상륙 루이지애나·미시시피 등 비상사태 선포

미국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 알라바마주는 26일(현지시간) 허리케인 '아이작'이 접근함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플로리다주는 하루 앞서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이날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지역으로 상륙한 아이작이 루이지애나주 해안과 뉴올리언스 방향으로 서진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허리케인 경보를 발령

했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아이작은 최대 풍속이 시속 100km로 열대성 폭풍 급이지만, 29일 새벽께 멕시코 만 북부 해안에 도달하면 최대 풍속이 시속 169km에 달하는 2급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아이작이 통과한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선 어린이 3명과 포항해 모두 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근 도미니카 공화국에선 2

명이 숨졌다. 아이티 방위장군은 8세 소녀가 집 벽이 무너져 목숨을 잃었고 6세 남아는 임시 텐트 대피소에서 사망했으며 51세 여성은 나무가 집 지붕 위로 쓰러져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는 강풍 때문에 항공기 운항이 500편 이상 결항됐다. 키웨스트 관광지의 식당과 상점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

주민들은 꼭 7년 전 뉴올리언스 등 멕시코만 연안을 강타해 18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억 달러의 재산 피해를 낸 '카트리나'의 악몽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연남뉴스

# 밀가루 500t 北 수해 지원

## 월드비전, 北과 합의

국제구호단체 월드비전이 북한과 밀가루 500t의 수해 지원에 합의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월드비전 관계자는 이날 "청천강 범람으로 피해가 컸던 평안남도 안주시와 개천시에 밀가루 500t을 지원하기로 북한 민족경제협력 연합회(민경련)와 합의했다"며 "북측에서 26일 오후 늦게 팩스를 보내와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월드비전이 대북 협력기관단체협의회(북민협)의 회원단체고, 북민협이 최근 개성에서 북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관계자들을 만나 수해지원을 협의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북민협과 상의해 지원시기와 방법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주안이라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태도가 우리 민간단체의 지원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강조하는 '모니터

링(분배감시)' 문제도 지난해 수준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창민 부회장을 비롯한 월드비전 관계자 3명은 지난 17일 개성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하고 돌아왔다.

한편,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협의체인 북민협은 이날 북한 민화협과 팩스를 통해 9월 10일 이전에 평안남도 지역에 밀가루 1000t을 지원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남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since 200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b>월곡동(블록상)</b> 대1787㎡ 감정가 22억 최자가 12억4천	<b>쌍암동(대지)</b> 대1787㎡ 감정가 17억5천 최자가 9억8천	<b>치평동(모텔)</b> 대24㎡, 2715㎡ 감정가 16억 최자가 8억2천	<b>화산오곡(근린시설)</b> 대83234㎡, 24280㎡ 감정가 49억3천 최자가 12억1천	<b>화정동(역시점)</b> 대1094㎡, 24489㎡ 감정가 41억5천 최자가 21억2천	<b>장성항행(공원)</b> 대3398㎡, 801㎡ 감정가 15억 최자가 6억7천	<b>도산동(교회)</b> 대772㎡, 23786㎡ 감정가 9억5천 최자가 4억2천
---	---	--	--	---	--	---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비디오공장)</li> <li>대지 3025평 &gt; 건물 597평</li> <li>감정가 99억4천</li> <li>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완주 봉동(대형공장)</li> <li>대지 7125평 &gt; 건물 5465평</li> <li>감정가 135억</li> <li>매매가 70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동(목욕탕)</li> <li>대지 91평 &gt; 건물 303평</li> <li>감정가 10억</li> <li>매매가 4억7천(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봉동(하이스포텍)</li> <li>대지 4076평 &gt; 건물 12943평</li> <li>감정가 515억7천</li> <li>매매가 160억(사설비별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산동(주유소)</li> <li>대지 230평 &gt; 건물 105평</li> <li>감정가 15억5천</li> <li>매매가 11억 (협의후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군산 (공장)</li> <li>대지 1999평 &gt; 건물 687평</li> <li>감정가 25억</li> <li>매매가 17억(협의후결정)</li> </ul>

근린시설/원룸 정현호이사 010-5879-0005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김중원이사 010-8227-7759

**도시형 생활주택 부지 매매**  
▶ 쌍촌동 운천저수지 건너편 명지아파트 옆  
대지 427평(매매가 7억6천860만원)  
평당 180만원

아파트/빌라 박미림대표 010-9900-3002    주택/재개발 김수희 대표 010-8567-4600    근린주택 손해연이사 010-9611-2817

당사 보유 부동산 매각  
· 광주대일(지하)호프 분식60명, 원동형빌라(산수동, 백운동)5칸, 계림동 E마트1층1칸  
대출 + 보증금공제후 실인수가 1천만원 (H.010-6654-6888)

**현대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후 24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물건과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항상 신속하고 친절하며 책임감을 갖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히 구하는 물건(매매나 임대)**  
(건물구할)

- 일반상가 건물: 3억에서 50억
- 모텔 및 목욕탕
- 고시원
- 다기주택(원룸, 투룸, 스키룸)

**<토지구할>**  
지역: 관산구 도천동 하남동 장수동  
면적: 200평~300평, 용도지역: 자연농지, 용도: 주저장  
최고용도 300평 정도 대형저택(원거지)가능지역 광주시내 전역

**<모텔 매매>**  
서구 객실 20개 대출 4억2천 매도가 8억5천 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매도가 30억 보증금 7억 임대료 1400만원  
매도가 45억 보증금 6억 월2900만원

**<상무지구 토지매매>**  
중심상업지역 178평, 360평 매매가 협의 후 결정  
자연농지 353평 30m 도로접, 농지전용 완료, 매매가 협의후 결정

**<토지 매도>**  
관산구 도천동 자연농지 2397㎡(725평) 평당 96만원  
공정 최고용도 적합  
비야동 자연농지 11,463㎡(3,468평) 평당 70만원

**<시의 매도물건>**  
물류창고지역: 장성군 황령면, 장성군에서 2.5km 계획관리지역  
3200평 평당 45만원 농지전용 건축허가 필

T. 062) 371-1900, 010-2006-0115  
상무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08949.co.kr

**가은 공인중개사**  
**급 구**  
☆전남지역☆  
**업 전 양어장 (폐업전 포함)**  
**잡종지**  
**즉시 매입가능!**  
상무지구 랜덤피아 사거리 010-8289-8549

**대인동상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몰 사실분과 양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FAX)223-1772    현 011-602-2532  
(주)연남신협빌딩, 대인동 소방서건물내

**첨 단 신창동 신가동**  
**상가 건물**  
**파실분환영!**  
(8억 ~ 12억계약가능)  
**<매수자 대가중!>**  
**광주원룸매매**  
원룸 파실분 매원영!  
(매수자 다수 대가중)  
**<사실분도 문의환영>**  
(수익률 높은 원룸 많이 있습니다.)  
**광주 원룸 토지매매**  
**파실분 → 빠른 계약가능!**  
**사실분 → 원하는 땅 구해드립니다!**  
**우림공인중개사**  
일국지구 중심상가 밀집지역내 위치  
**010-3622-6076**  
062)576-8484

**상무랜드공인중개사**  
**상가(매매)**  
■봉선동 (총복합) 상가 323평 평당 1,200만원(38억)  
보증금 20억 월임대료 1,200만원  
■봉선동 1층복합 상가 121평 평당 1,730만원(21억)  
보증금 2억 월임대료 1,200만원  
■첨단 1층복합상가 205평 평당 707만원(1495천만)  
임대보증금 1억  
월임대료 1,000만원  
■두암동 7층건물 164평 건물4000원(31억)  
임대보증금 95억 월1,500만원  
**토 지(매매)**  
■(상무지구)469㎡(142평)-매가 평당 1,200만원  
(유형가능,석당영업중)  
■(상무지구)833㎡(252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변화가 시가리코너)  
■(상무지구)1,980㎡(600평)-평당 1,200만원(상무지구) (유형가능)  
■(상무지구)3,400㎡(약1,000평) 평당 750만원(시정당) (회사사용,오피스빌딩 적합)  
■(동림지구)중주거지 용암-하남 간대로변4,470㎡(약1,352평) - 평당330만 (예산정 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립니다.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우여타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마트 지하 1층)